

EU-베트남(EVFTA) 발효를 통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간접 수혜 예상

2020년 9월 14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 EVFTA

○ 베트남-EU간 FTA(EVFTA) 발효

- 베트남과 유럽연합(EU)간 자유무역협정(EVFTA: EU-Vietnam Free Trade Agreement) 및 투자보호협정(EVIPA: EU-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)이 '20.8.1일 발효되었음
- 유럽연합(EU)은 베트남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베트남의 '19년도 EU시장 수출실적은 412억 달러(한화 약 49.4조원)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
- FTA가 발효되는 '20.8.1.부터 베트남은 EU로 수출하는 자국 상품의 70.3%에 대해 관세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으며, 향후 7~10년에 걸쳐 수출되는 상품의 99.7%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
-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베트남 무역에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특히 쌀, 수산물 등 품목들이 EVFTA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○ EVFTA, 한국 기업들도 간접 수혜 예상

- 이번 EVFTA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하였거나 베트남에서 재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EVFTA의 원산지 누적(Origin Accumulation) 규정에 따라 한국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도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EU국가로 해당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
- 또한, 한국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'인증 수출자' (AE, Approved Exporter) 자격임. EVFTA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, 인증 수출자로부터 재료를 수입해야만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으로서는 인증 수출자 자격을 인정받은 한국 기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



* 출처 : Vnexpress 등 현지 주요 언론

○ 시사점

- 현재 베트남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각종 원물을 수입하고 있으나, EVFTA 활용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물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또는 한국산 원물을 수입하여 베트남내 재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해왔던 기업들이 이번 EV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임

○ 출처

- EVFTA 협정 관련 뉴스기사

<https://baoquoc.vn/hiep-dinh-evfta-chinh-thuc-co-hieu-luc-tu-ngay-hom-nay-18-120638.html>